

일요일 저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잡아챈 프로그램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를 기억하는지, 이웃의 낯은 동지를 생각지도 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시키고, 사연이 깊은 불우이웃 눈에서 눈물을 솟 빼내던 극적인 휴먼 드라마, 잠시 휴지기를 거친 프로그램이 새로운 MC와 함께 다시 시작됐지만, 시청자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천진불의 미소와 발군의 감각이 으뜸인 이창하 디자인을 자주 출연시켜라."

개그맨 신동엽의 짓궂은 장난도 수줍은 웃음으로 덮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아빠'를 자칭하기도 하는 이창하(47·이창하 디자인 연구소 소장)씨는 '인간미 넘치는 건축가' 타이틀이 제격인 인물이다. 어눌한 듯하면서도 설계방향을 자본자본 일러주는 모습에선 건축전문가의 후광까지 있어,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절로 샘솟는다.

"설계와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시작한 일, 때론 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지요."

자신의 일을 부처님 인연으로 끌어가는 이 씨, 그저 불자이기에 내댈진 말이었지만, 이 어지는 얘기가 점점 깊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속세에 있는 몸이라고 해도 쪽보로 치면 금오스님의 손상좌 뺨 됩니다. 조계종 원로의 원행스님은 은사스님 격이고 전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은 사형이 됩니다."

그의 남다른 불연(佛緣)은 금오스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누이가 금오스님을 시봉하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불심에 젖어들었다. 그래서 금오스님 상좌인 법행스님을 비롯, 그 문중 스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한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 '단청'. 어릴 때부터 고향에 필요한 그림을 도맡아 그림 정도로 미술에 뛰어난 감각을 보이던 그는, 고건축에 색을



이 / 창 / 하

MBC <러브하우스> 건축가

입히는 '단청'에 매료돼 사잡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단청장 만봉스님에게 사사받으며 단청에 대한 꿈을 본격적으로 키우게 됐다. 그리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해 혜광스님이 있는 남원 실상사에서 혼자만의 '단청수행'에 몰입, 행자생활을 자정하면서 꼬박 3년을 공부했다. 과거를 묻으며 현재를 겪어내는 단청의 미(美)가 그리 좋을 수 없었다. 그러나 3년의 세월 끝에 내린 결론은 허무했다.

"그때까지 그림에 관한 한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단청 문양 앞에서는 그 어떤 창작도 이루질 못했어. 기존의 벽을 넘어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적 한계에 부딪힌 그는 몇몇 스님들과 만행을 떠났다. 그러다 봉암사에 이르러 대웅전 상량식을 보는 순간, '건축'이라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됐다. 단청으로 나를 풀어내려는 것은 한낱 집착에 지나지 않았음도 깨달았다. 그는 그 길로 절에서 나와 세계의 건축을 공부하려 떠났다. 6년여의 준비 기간 끝에 미국에서 건축가로 정착하게 됐다.

이후 그는 초심을 지키며 특급호텔 등의 굵직한

한 설계에서 기량을 발휘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학시절 다양한 나라를 거치며 건축의 기초를 탄탄히 했기에, 유럽 취향의 호텔과 리조트 설계에도 쉽게 발맞추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불교를 몸으로 느끼던 젊은 날의 체험 역시 디자인 바탕에 오롯이 녹아들어, 여타 건축가와 구분되는 아우라(Aura) 예술 작품의 고고한 분위기를 생산해 낼 수도 있었다.

"생명을 담은 고건축의 힘을 요즈음 새삼 느끼고 있어요.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건축, 자연의 일원이 되는 건축을 생각하다보니 사찰건축과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그래서 부처와 나, 그리고 자연이 하나되는 느낌을 현대 건축으로 풀어내는 것을 새 과제로 삼게 됐죠."

그의 이 같은 생각은 '러브 하우스' 설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빛과 바람을 측정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기본이고, 공기의 흐름도 최대한 자연의 리듬에 맞추기로 했다. 또한 '참나'를 추구하는 불법을 화두 삼아 '본연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설계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이를 위해 공간에 머물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을 설계의 중요 과정으로 삼고, 집을 설계할 때도 '이곳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되짚어보는 일을 잊지 않는다. 사랑이 깃들 때 그 건축이 완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북 상주 현정사의 담장을 쌓으며 불연을 되새기고 있다는 이 씨, 대학에서 강의하라, '러브하우스' 설계하라, 쏟아지는 건축의뢰에 일일이 응하라,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지만 '열일 제쳐두고서라도 현정사 담장 설계공사는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한다. 언제나 깊은 마음으로 정성적 고향에 힘이 되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기에 그렇다.

글=강신재 기자 hnsfw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ogo@buddhapia.com

자신의 일 부처님 인연으로 끌어가는 이
내적인게 집착임을 깨닫고 나만의 **窓** 펼쳐
부처와 나, 자연이 **하**나되는 느낌을 건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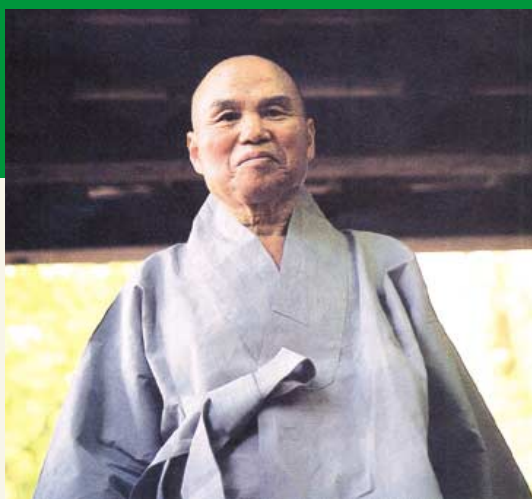
“사랑 깃들어야 완전한 건축”

성철대중사 열반 10주기추모 국제학술회의 및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에서는 성철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이하여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 (Enlightenment and Its Cultural Aspects in the Modern Perspective) 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 기독교 등 동서양의 타 종교 전통 전공자들과, 현대 인문학자들이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깨달음을 불교 修證論 맥락에서만 보지 않고, 깨달음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논의하고 문화론적 관점에서 깨달음의 현대적 의미를 논의합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경계를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현대 문명의 분절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 ▶ 일시 : 2003년 10월 16일 오전 10시 ~ 17일 오후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4층
- ▶ 주최 :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불교신문사
- ▶ 후원 :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텔레비전
- ▶ 발표 및 논평 (초청생략)
 - 목정배 교수 "깨달음의 의미와 기능" / 기조발제
 - 김경일 "퇴공 성철의 깨달음과 실천 방향" / 논평 윤원철
 - 전 현 "성철스님의 문수론" / 논평 허우성
 - Cuong Tu Nguyen(George Mason Univ.) "Wonhyo and Yogacara Philosophy" / 논평 안성두
 - Mario Pocesski(Univ. of Florida) "Chan Practice and Realiz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Classical Soteriological Models" / 논평 김중민
 - 陳兵(中國 四川大學 宗教學研究所 教授) "禪宗與宋元道教" / 논평 최인범
 - Min Bahadur Shakya(Nagarjuna Institute, Nepal) "Acaraya Kamalashila's views on the path to Buddhist Enlightenment" / 논평 김성철
 - Robert Gimello(Harvard University) "The Notion of Original Enlightenment (benjue 本覺) in Huayan 華嚴 Buddhism, Considered in the Light of Certain Christian Analogies" / 논평 최인성
 - Imre Hamar(Eotvos Lorand University in Budapest, Hungary) "Cultivation and Awakening in Chengguan's Teachings" / 논평 해주
 - Charles Muller(Toyo Gakuen Univ.) "Enlightenment in Reading Scriptures that Tend Toward Non-appropriation: Daoism, the Diamond Sutra and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 논평 김종명
 - 노영환(George Mason Univ.) "Mystical Vision and Postmodern Mentality, and the element of 'Suddenness'" / 논평 김은기
 - Michael David Kurak(University of New Brunswick, Canada) "Enlightenment and the Culture of Science" / 논평 이승환
 - Michael P. Levine(Univ. of Western Australia) "Can the Concept of Enlightenment Evolve?"/ 논평 조성택



해인사 백련암 성철스님문도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면 치린리 10번지
전화 055-932-7300 인터넷 http://www.songchol.net
■ 성철선사상연구회 02)744-1541

성철 대중사 열반 10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 /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철 대중사 열반 10주기를 맞이하여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성철 큰스님은 속인으로 왔다가 끝내 부처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 시대의 부처'로 불리는 깨달은 오직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그 결의를 평생토록 지킨 남다른 실천가였기 때문입니다.

큰스님 가시고 없는 가야산, 그러나 한평생 오롯한 선승의 길을 걸어 온 큰스님의 자취는 지금도 매서운 죽비소리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아직도 가야산의 메아리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생전의 가르침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참회하고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누누이 이르시던, 그 참되고 소박한 가르침은 오늘날 가야산의 메아리가 되어 영원토록 울리고 있습니다. 두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나의 일체배가 뜻 중생을 위한 팔만사천배의 회향이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일 재** : 2003년 10월 8일(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 ▶ **회 향** : 2003년 10월 15일(월 9월 20일), 수요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 ▶ **기도방법** : 매 두시간 단위로 일천 배가 이어져 팔만사천배가 이루어집니다.
- ▶ **동참방법** : 누구든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 ▶ **준 비 물** : 성허 밥복(고름 있는 것), 수건, 세면용품 등을 준비하십시오.
- ▶ **3천배 참회기도** :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 ~ 9시, 성철대중사 사리탑
- ▶ **주 모 재** :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해인사 대적광전
- ▶ **문의전화** : 02)744-1541(성철선사상연구회), 031)791-7732(정심사), 055)932-7300(백련암)